

## [고3] 15분 모의고사 1회

이름 :	풀이시간:	분	점수:	/ 총 100점 (각 10점)
------	-------	---	-----	------------------

### 1. <보기>의 ㉠~㉣를 ㉠~㉣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

사람들은 대체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말을 한 시점을 비교하여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인식한다. 또한 사건이 일어나는 양상에 따라 ‘진행’, ‘완료’로 구분하여 인식하기도 한다.

[시간 표현의 예]

- 나는 밥을 ㉠ 먹고 있다.
- 어제 나는 박물관에 ㉡ 갔었다.
- 우리는 한글을 오랫동안 ㉢ 사용해 왔다.

- ① a-㉠, b-㉡, c-㉢      ② a-㉠, b-㉢, c-㉡  
 ③ a-㉡, b-㉠, c-㉢      ④ a-㉡, b-㉢, c-㉠  
 ⑤ a-㉢, b-㉠, c-㉡

### 2. <보기>의 ㉠, ㉡과 의미 중복 유형이 가장 유사한 단어는?

< 보 기 >

㉠ ‘저희들’이나 ㉡ ‘너희들’은 ‘-희’가 복수성을 가지고 있어 ‘저희’, ‘너희’만으로 복수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시 ‘-들’을 붙여 ‘저희들’, ‘너희들’처럼 앞 말의 일부를 중복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 ① 뺏골                      ② 외갓집                      ③ 씹씹이  
 ④ 단웃날                      ⑤ 교차로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34년 7월 1일. 조선 왕조는 자격루(自擊漏)라고 불리는 자동 물시계를 국가의 새로운 표준 시계로 채택했다. 세종의 명을 받은 장영실은 더 정확한 물시계를 만들기 위해 시각을 측정하는 잣대의 길이를 4배 가량 키워 눈금을 세밀하게 새겨 넣고, 물받이 통을 비울 때도 연속적으로 시간을 잴 수 있게 통을 2개로 늘렸다. 여기에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 주는 장치를 더하여 자격루를 완성하였다.

자격루는 시각을 측정하는 물시계, 물시계에서 측정된 시간을 소리로 바꿔 주는 시보 장치, 물시계와 시보 장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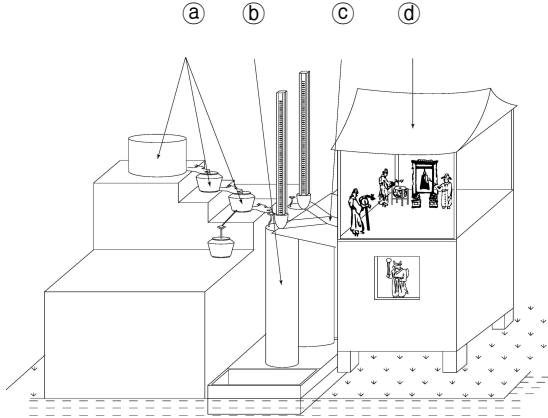
연결해 주는 방목(方木)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만 원짜리 지폐에서 볼 수 있는 물시계 부분은, 물을 공급하는 항아리인 파수호에서 물을 흘려 보내면 물받이 통인 수수호에 물이 고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수호에 띄워 놓은 잣대가 고인 물의 부력에 의해 떠오르면 잣대에 새긴 눈금을 읽어 시각을 알아낸다. 따라서 물시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수수호를 튼튼하게 제작하여 물이 가득 찼을 때 받는 수압에도 변형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다. 실제 자격루의 수수호는 지금까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시보 장치의 상단에 설치된 3개의 시보 인형은 시(時), 경(更), 점(點)마다 각각 종, 북, 징을 쳐서 시간을 알린다. 시보 인형 가운데 하나는 시를 알려 준다. 매 시각마다 인형의 팔뚝과 연결된 제어 장치가 작동하여 인형의 팔뚝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종을 울리게 한다. 시를 담당하는 인형이 종을 울리면 곧이어 시보 장치 하단에서 12지신 가운데 그 시에 해당하는 동물 인형이 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나온다. 예를 들어 자시(子時)에는 쥐 인형이 ‘자(子)’라는 글자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와 지금 울린 종소리가 자시라고 알려 준다. 이러한 일련의 동작은 시보 장치 안에 있는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된다. 경과 점을 알려 주는 다른 2개의 인형은 경점법이라는 우리의 고유한 시간 표시 방법에 따라 작동하면서 시간을 더 자세하게 알려 준다.

아날로그-디지털 신호 변환기의 원리가 들어 있는 방목은 시보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즉, 수수호에 물이 차올라 잣대가 떠오르면서 방목 안에 설치된 장치가 구리로 만든 작은 구슬을 차례대로 떨어뜨린다. 연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물의 양인 아날로그 신호가 일정한 간격마다 구슬이 떨어지는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슬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시보 장치에 전달되어 시간을 알려 주는 데 사용된다. ㉠ 한마디로 말해 자격루는 디지털 방식을 도입한 기계식 시계인 셈이다.

한편, 조선 왕조에는 자격루가 제작되기 전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알려 주는 일을 담당하는 관청이 있었다. 물시계를 맡은 관리는 밤낮으로 물시계를 지켜보면서 시간을 알려 주었는데, 가끔씩 제때를 놓쳐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 시보 장치를 가진 정확한 물시계의 제작은 모든 시계 제작 기술자의 꿈이었으며, 예로부터 정확한 시간을 알려 줄 책무를 지닌 왕의 소망이기도 하였다. 자격루는 그 꿈을 실현시킨 15세기의 첨단 기술이었던 것이다.

3. 아래 그림은 위 글을 읽고 자격루의 구조를 추정하여 그린 것이다. ㉠~㉣의 명칭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       |     |       |       |
|-------|-----|-------|-------|
| ㉠     | ㉡   | ㉢     | ㉣     |
| ① 수수호 | 파수호 | 잣대    | 시보 장치 |
| ② 물시계 | 파수호 | 방목    | 시보 장치 |
| ③ 물시계 | 잣대  | 시보 장치 | 방목    |
| ④ 파수호 | 수수호 | 방목    | 시보 장치 |
| ⑤ 파수호 | 수수호 | 잣대    | 방목    |

4. <보기>를 이용하여 자격루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 보 기 >

- 경점법이란 해가 진 뒤부터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의 하룻밤을 5등분하여 5경으로 나누고, 1경은 다시 5등분하여 5점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은 매일 조금씩 변하므로 경과 점의 길이 역시 조금씩 달라진다.

- ① 경과 점을 알리는 시보 인형은 밤에만 작동한다.
- ② 12지신의 동물 인형은 항상 같은 간격으로 나타난다.
- ③ 밤낮의 길이 변화에 따라 눈금이 다르게 새겨진 잣대를 사용한다.
- ④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리는 시간 간격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 ⑤ 시보 인형 3개의 역할은 각각 오늘날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에 해당한다.

5. ㉠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시계 부분은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생각해.
- ② 자격루는 기계식이라서 오늘날의 전자식 시계와는 차이가 있어.
- ③ 자격루를 자동 물시계라고 부르는 것은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이겠군.
- ④ 자격루에서 방목의 디지털 신호를 받아 작동되는 부분은

은 시보 장치야.

- ⑤ 시보 장치 안의 복잡한 기계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동력이 필요하구나.

6. 위 글을 읽고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하고자 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격루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어떻게 보정했을까?
- ② 자격루는 언제까지 국가의 표준 시계로 사용되었을까?
- ③ 일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 주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 ④ 조선 시대의 왕은 왜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고 했을까?
- ⑤ 만 원짜리 지폐에 자격루 그림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날 밤 승용차 안의 사나이가 우리 동네의 나머지 입주권을 모두 사 버렸다. 그는 다른 투기업자들이 이십이만 원에 사는 것을 이십오만 원씩 주고 모두 사 버렸다. ㉠그날 밤에도 영희는 팬지 꽃 앞에 앉아 기타를 쳤다. 영희는 팬지 꽃 두 송이를 따 하나는 기타에 꽂고 하나는 머리에 꽂았다. 그리고, 꿈쩍도 하지 않고 기타만 쳤다. 사나이가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했다.

“이십오만 원이 분명하죠?”

어머니가 물었다. 사나이를 따라온 나이 든 사람이 검은 가방을 열어 돈을 보여 주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매매계약서를 썼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서류가 든 봉투와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아버지는 계약서 매도자란에 ‘金不伊’라고 쓰고 도장을 눌렀다. 나이 든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아버지 이름이 갖는 아픈 바람의 뜻을 그가 알 리 없었다. 어머니는 소중하게 싸 두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넘겨주었다.

[A] 식칼 자국이 난 표찰, 아침 수저를 놓고 가슴을 세 번 치게 한 철거 계고장, 집을 헐값에 버리기 위해 생전 처음 내본 인감 증명 두 통, 미리 서명해 두었던 명의 변경 신청서, 힘 하나 없는 식구들의 이름과 나이가 차례대로 적혀 있는 주민 등록 등본 두 통.

[B] 마당가 팬지 꽃 앞에 앉아 있던 영희가 고개를 숙였다. 사나이가 돈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뒤로 물러앉았다. 아버지가 그것을 받았다. 꼭 삼 초 동안 들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돈을 받아 들었다.

㉡ 다음날 아침, 명희 어머니는 사람들을 시켜서 집을 헐었다. 어머니가 십오만 원을 갚았다. 두 부인은 손을 마주잡은 채 아무 말도 못 했다. 용달차가 좁은 골목을 뚫고

들어와 명희네 집을 실었다. 명희 어머니가 치마를 올려 눈물을 닦았다.

“에유, 정이란 게 원지!”

명희 어머니가 말했다.

“정이란 게 이렇게 더러운 게라우.”

그 말이 우리의 눈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용달차가 집 앞을 지나갔다. 아버지는 오른손을 반쯤 올렸다 내렸다. ㉠ 원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지섭의 책에 아버지의 손때가 까맣게 묻었다. 아버지와 지섭은 우리에게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였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달에 가 천문대 일을 보기로 했다. 내가 할 일은 망원렌즈를 지키는 일야. 달에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렌즈 소재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렌즈를 지켜야 할 사람은 필요하다.”

“아버지,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넌 이때까지 월 배웠니?”

아버지가 말했다.

“뉴턴이 그 중요한 법칙을 발표하고 삼 세기가 지났어. 너도 그걸 배웠지?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어. 그런데 우주에 관한 기본 법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그런데 누가 아버지를 달에 모시고 가겠대요?”

“지섭이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 센터에 편지를 냈다. 그곳 관리인 로스 씨가 답장을 보내올 거야. 후년에 우주 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달에 가게 될 거다.”

“그 책을 돌려주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그는 미쳤어요.”

“이 책의 사진을 보라. 이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이 사람은 로버트 고다드다. 당시 사람들이 미치광이로 지목했던 인물들이야. 이 미친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니?”

“몰라요.”

“넌 학교에서 죽은 교육을 받았어.”

“어쨌든 그 책을 돌려주세요.”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고생하다 바짝 마른 물골로 죽기를 바라고 있지? 힘든 일에 놀려 허우적거리다 숨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너희들은 왜 지섭에게 아무것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니?”

“도대체 월 배우라는 말씀예요?”

“로스 씨의 편지를 받기 전에 보여 줄 것이 있다. 지섭에게 말해서 쇠공을 쏘아 올려 보여 주마.”

㉡ “없지?”

“네.”

“찾지도 못하면서 밤새도록 어디 가 있었니?”

나는 돌맹이를 집어 다시 방죽을 향해 던졌다. 어머니도 기진해 다른 말을 못 했다. 형이 어머니의 등을 밀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백여 채의 집이 헐리고 남은 것은 몇 채 안 되었다. 우리도 영희만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전날 떠났을 것이다. 철거일을 어겨야 할 다른 이유는 없었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매었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 꽃 두 송이뿐이었다. ㉢ 나는 좀 큰 돌맹이를 집어 던졌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잔물결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이질적인 장면을 삽입하여 비극적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 ② ㉡ : 서술 시점을 바꿔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변화를 준다.
- ③ ㉢ : 책을 매개로 하여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④ ㉢ : 장면을 전환하여 회상에서 현실로 돌아왔음을 보여 준다.
- ⑤ ㉢ : 생각이 흘러가는 동안 행동도 함께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8.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을 파는 사건 그 자체에 주목하게 한다.
- ② 가족이 무력한 존재로 살아 왔음을 드러낸다.
- ③ 집을 파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함을 보여 준다.
- ④ 떠돌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가족의 숙명을 보여 준다.
- ⑤ 가족의 기억을 담고 있는 집이 표찰과 서류로 대체됨을 보여 준다.

9.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해석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상 세계를 꿈꾸는 것이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도 멀다는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실 비판의 표시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대항 이미지로서의 이상 세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할 때, 그 이미지는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되거나 현실을 극복해 가는 힘이 된다.

- ① ‘달’은 현실의 모습을 개혁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 ② ‘달’은 아버지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달’에서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현실 개혁의 방법을 제시한다.
- ④ ‘행복동’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상 세계가 현실에서도 가능한 것임을 암시한다.
- ⑤ ‘행복동’은 현실 비판적 의식으로 현실의 모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매매가 끝났음을 보여 줌과 동시에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10. [B]를 <보기>와 같은 시나리오로 각색했을 때, 고려했을 내용과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 73. 김불이 집 마당(저녁)  
 마당이 팬지 꽃 앞에 있던 영희, 슬픔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집 밖으로 뛰어나간다.  
 어머니, 사나이가 돈을 헤아리는 것을 바라본다. 돈을 헤아리는 모습 위에 O.L.\*  
 남편과 아이들이 도랑에서 돌을 지고 와서 그것으로 계단을 만들어 벽에 시멘트를 치던 모습.  
 “여기 있습니다.” 하는 소리에 다시 O.L.  
 사나이가 돈을 내민다.  
 어머니, 자신이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난다.  
 아버지가 돈을 받는다. 아버지, 잠깐 돈을 들여다본다.  
 여기에 덮이는 지섭의 소리 - “이게 뭐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어머니에게 돈을 넘겨주자 어머니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는다.  
 어머니, 잠시 멍해진다. F.O.\*\*

\* O.L.(overlap) : 화면이 겹쳐지며 장면이 바뀌는 수법.  
 \*\* F.O.(fade out) :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는 것.

- ① 영희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통해, 집이 팔리는 상황에서 영희가 느끼는 감정을 더욱 강조한다.
- ② 집을 파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심경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그 집을 짓던 때의 행복했던 모습을 끼워 넣는다.
- ③ 처음 이곳에 정착했을 당시의 행복했던 모습은 단지 지나간 과거의 한순간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나이의 목소리로 회상 장면에서 돌아오도록 한다.
- ④ 돈을 받는 상황에서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지섭의 말을 끼워 넣는다.
- ⑤ 어머니의 허탈하고 슬픈 표정을 어둡게 처리하여, 집의

- 수고하셨습니다. © -